

동구 · CIS

◆ 체코, 철강 부문의 민영화 관련 EU와의 합의 위해 노력

체제전환 이후 경쟁력을 상실해가고 있는 체코 철강산업의 구조조정 및 철강회사 매각을 놓고 체코 정부와 EU 및 외국 투자자들간에 지지부진하던 논의가 드디어 조만간 결론에 도달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체코 정부가 최근에 제시한 철강사업의 구조조정 계획안은 체코의 양대 철강회사인 Nova Hut와 Vitkovice를 외국인 투자자에게 매각하는 방안을 포함하는 등 이전에 비해 진전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동 계획안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국영 철강회사에 대한 체코 정부의 자금지원을 포함하고 있어, EU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문제가 남게 되었다.

체코 정부, 철강부문 구조조정 지연시켜

체코 정부는 지난 1990년대에 철강산업 구조조정을 등한시한 정책적 오류를 범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철강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주요 제강공장들을 하나의 대형 공장으로 통폐합하는 구조조정이 필요했으며, 아울러 제강공장들의 민영화도 필연적이었다. 그러나 체코 정부는 모라비아 북부지방에서 약 31,000명의 실업자 발생을 우려하여 철강산업 구조조정정을 지연시켰으며, 그 결과는 주요 철강

회사의 재무구조 악화로 나타났다.

체코 최대의 제강회사로 12,000명을 고용하고 있는 Nova Hut는 지난해 적자규모를 줄이는 데는 성공했으나, 아직도 적자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다. 게다가 부적절한 설비투자 결정으로 재무상태 악화 등 부담만 더욱 늘어나게 되었다. 한편, 철강 및 엔지니어링 그룹인 Vitkovice는 Nova Hut보다 형편이 다소 나은 상황이다. 2년 전 위기상황에 처했던 Vitkovice는 33억 코루나의 정부 공적자금으로 부채를 상환하는 등 구조조정에 힘쓴 결과 현재는 비교적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업체들, 체코 철강회사 인수에 관심 높아

지금까지 수 차례에 걸쳐 체코 정부의 철강산업 구조조정 계획안을 거부해 온 EU 위원회는 EU 가입 협상분야인 '기업간 경쟁'에 관한 규정이 매듭지어지기 전에 체코 정부가 보다 현실적인 계획안을 제출하기를 바라고 있다. EU 위원회는 공급초과로 인한 철강제품의 국제시장가격 하락, 수입 철강제품에 대한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 등으로 EU 철강산업이 어려움

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체코 정부의 철강 산업 지원을 언제까지나 묵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체코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Nova Hut와 Vitkovice를 외국인 투자자에게 매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투자유인을 위해 철강업체가 안고 있는 채무탕감이 필요한 데, 이도 EU 위원회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 체코 정부의 고민이 있다. 오는 6월의 총선을 앞두고 EU 위원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 노력중인 체코 정부는 통상적인 입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네덜란드계 LNM Holdings를 Nova Hut의 인수자로 선택했다. 최근 루마니아의 철강회사 Sidex社를 인수한 바 있는 LNM은 지난 4월 Nova Hut의 인수를 위한 예비 응찰서를 제출했으며, 아울러 Vitkovice의 철강 부문 및 기타 소규모 제강 공장 인수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LNM은 Nova Hut의 인수 및 향후의 투자를 위해 약 1억 7,500만 달러의 자금

을 투입할 계획임을 밝혔으나, 동시에 체코 정부가 Nova Hut의 부채를 상당 규모 탕감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관측통들은 만약 체코 정부와 LNM간의 인수협상이 결렬된다 해도 Nova Hut와 Vitkovice가 우수한 생산설비 및 생산품목의 다양성 등에 힘입어 충분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US Steel과 독일의 Salzgitter(체코 제3의 철강회사인 민간업체 Trinecke Zelezarny와 컨소시엄 형성) 등 철강업체들과 미국의 CMC와 이스라엘의 Shiran 등 철강 무역업체들도 인수협상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EU 위원회는 올 여름 체코 정부가 제출한 새 구조조정 계획안을 심사할 예정인데, 동 계획안은 Nova Hut의 해외매각이 실패할 경우 추가로 70억 코루나의 자금을 투입하여 재무구조를 개선한 후 재매각을 재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吳 昊 駟】